

정읍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복직'

대우전자부품 등 20개 회사 참여 구직자 1000여명 방문해 상담 서류전형·면접 원스톱 서비스

정읍시가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를 민선 8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체육관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와 전북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취업증거센터가 주관했다. 특히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각종 일자리 유관기관이 힘을 보탰다.

박람회에는 구직자 1000여명과 대우전자부품, 다원시스 등 정읍을 대표하는 20곳의 기업체가 참가했다.

참여 기업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 업체는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앞으로 기업별 자체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 채용을 확정지을 예정



정읍시가 지난 5일 정읍체육관에서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이다. 참여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제공을 비롯해 이력서 사진 촬영, 개인별 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또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18세~45세의 구직 등 특 정년을 대상으로 면접비 3만원도 지원할 예정

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는 고용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추진

시, 6억 9300만원 사업비 확보 전체 가입액 85% 지원

남원시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가

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팔발,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축사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 화재가 자주 발생되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상징물 '비둘기' 바꿀까요?"

환경부, 농작물 등 유해조수 지정 군, 20일까지 군조 변경 군민 설문

고창군이 군 상징물 변경 여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군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고창군의 군조(郡鳥)는 '비둘기'다.

고창군은 비둘기가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과 친하게 살아온 새로서 군민의 애향심과 온순성으로 군민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군조를 지정했다.

하지만 2009년 환경부가 인명이나 항공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비둘기를 군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시대흐름과 행정변화에 따라 군조인 비둘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군조 변경에 대한 군민 의견 설문을 진행한다.

이번 설문은 상징물 인지도, 군조 의미 인식, 군조의 상징물로서 의미, 군조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비롯해 대해 군조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군민과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창군청 홈페이지(gochang.go.kr-참여마당-설문조사)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양한 군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혜택 많은 착한가격업소 도전하세요"

고창군, 음식·세탁업 등 13일까지

고창군이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고창군은 현재 3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고창군에서 영업중인 업소로,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법인 및 프랜차이즈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신규업소는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유지업소는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고창사랑카드 이용객에게 5% 캐시백 등이 제공된다. 신규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신원력경제정책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요천에 쏘가리 치어 방류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일 남원을 대표하는 하천인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남원시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량 종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전염병검사를 거친 전장 3cm 이상의 쏘가리이다. <남원시 제공>

정읍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신청 연장

14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정읍시가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마감 기간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번 달 14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희망 농가는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이상이다.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복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자칫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